정교회주보

제2602호
2026년 11월 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가이사리아 해안 유적. 바울로는 이 도시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루가 제7주일
미하엘, 가브리엘 대천사와 모든 천사들
(제6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모든 천군 천사들 찬양송 …. 200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 사도경 : 히브리 2,2~10 ‥(봉)611
-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43회] 가이사리아에서 증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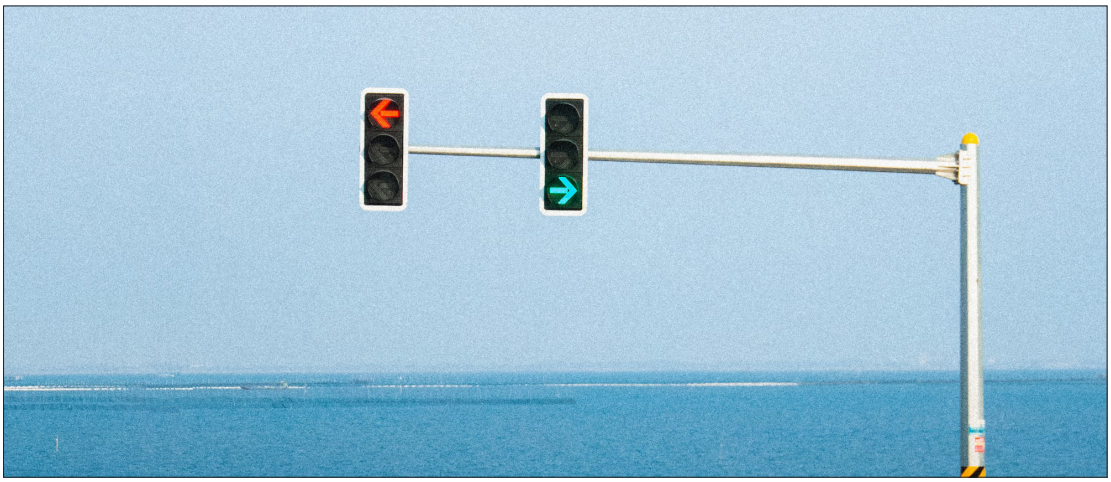
바울로는 가이사리아에서 총독 펠릭스와 페스도 앞에 서서 유다인 지도자들의 고발에 답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로마법을 거스르는 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총독들은 유다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살피며 그를 2년이나 가두어 두었다. 펠릭스는 바울로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말하자 두려워했고, 유다인들의 환심을 위해 그를 붙잡아 두었던 것이다.(사도행전 24-25장 참조)

이 사건은 세상 권세가 정의보다 편의를 앞세우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불의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며, 진정한 심판은 하느님께 속한다고 고백한다.

바울로의 몸은 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믿음과 사도적 사명은 묶이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계산과 불의마저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통로로 쓰셨다.

누구의 죄를 고백합니까?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고백성사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나왔을까요? 나였을까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였을까요?

돌아보면 남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고백성사는 하느님 앞에서 내 영혼을 깊이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인데, 고백은 어느새 가족과 이웃의 잘못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하다 보면 정작 살펴야 할 내 영혼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그 서운함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아프고, 그 아픔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죄인을 단죄하는 법정이 아니라 병든 영혼을 어루만지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고, 병원은 '어디가 아픈가'를 묻습니다. 그러니 낫기 위해서는 내 병을 내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위로와 치유를 청하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고백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억울한 원망 속에서도 마주해야 할 내 안의 잘못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이를 향한 미움,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돌아서서 남긴 험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며 속상해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그러니 나도 미워하겠다'라는 나약한 영혼의 민낯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지만, 그 상처를 핑계로 품었던 미움이야말로 고백성사에서 가장 먼저 꺼내놓아야 할 내 몫의 허물입니다.

고백성사를 받으러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이 빼곡한 억울함의 목록입니까, 아니면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시편 51,10)하고 간청하는 목마른 영혼입니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고백성사에서 이웃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내 몫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아픈 마음은 주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말입니다.

고백을 마치고 성당 문을 나설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남의 잘못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온전히 고쳐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물질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를 몰아낸다

엘레프테리오스(정신과 의사)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여러분이 만일 최근에 성당에 갔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게르게사 시골 지역을 방문하신 복음경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루가 8,26 이하 참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은 하느님의 율법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말하였습니다. “떠나가 주십시오.”(8,37)

“제발 떠나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사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돼지들과 함께 사는 법을 말입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 그러니 우리 형제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알 게 뭡니까? 당신은 무얼 바라 이리로 와서 우리가 누리던 이 평화를 어지럽힙니까?”

게르게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무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둡고 가엾은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의 흙이 그들을 집어삼킬 때까지 진탕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돼지떼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죽음을 넘어 마침내 부활로 이어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흙에 묻혀 끝나 버리는 삶을 살 것인지요?

주간 예배 안내

* 11월 9일(월)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 11월 13일(금)
  성 요한 크리소스톰 총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 영역본 출간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저서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가 영어로 번역되어 『Spiritual Quests』라는 제목으로 Holy Cross Orthodox Press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앞서 그리스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습니다.

▦ '아시시 정신의 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강연

지난 10월 30일(금), 서울 정동의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에서 '아시시 정신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시 세계평화기도 40주년과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여러 교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헤시카즘과 내적 평화'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대주교는 정교회의 영성 전통인 헤시카즘을 소개하며, 내적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종교 간 대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루는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소 식

▦ 국제 심포지엄을 마치며

지난 11월 2일 월요일 오후,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니싸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정교회 교부전집'의 두 번째 책으로 출간한 『모세의 생애』의 출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발제자들이 방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메시지가 대독되었습니다. 이어진 발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발표: 페리 하말리스 보제·박사, 「탁월성에서 참여로: 니싸의 성 그레고리오스가 이룬 고전적 덕 개념의 변혁」

제2발표: 헬렌 테오도로풀로스 박사, 「끊임없는 상승: 니싸의 성 그레고리오스의 신학에 나타난 하느님의 무한성과 인간 완성을 향한 여정」

제3발표: 바실리오스 아드라타스 박사, 「회의주의자에서 신비주의자로: 니싸의 성 그레고리오스의 신학에 관하여」

제4발표: 김산춘 요한 신부·박사, 「니싸의 그레고리오스의 신비신학: 에펙타시스(끊임없는 영적 전진)와 에클레시아(교회)」

발표에 이어 발제자들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4시간에 걸친 심포지엄은 많은 분의 참석과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소장: 안재원 교수)에서 마련한 식사를 모든 참가자가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10월 27일(화) 미국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11월 3일(화)에는 심포지엄 발제자들과 함께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중 24인 수호성인 소기원의식을 드리고,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묘소를 찾아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